

CHOI EUN HEE DANCE PERFORMANCE

최은희 춤

1985.6.3 ▶ 4 PM. 7:00 부산산업대학교 콘서트홀
후원 · 부산산업대학교 예술대학
부산시

● 春鶯轉

음악/국립국악원

宮中舞踊中 독무로 가장 손꼽히는 춤이다.
조선 28代 순조때 효명세자(翼宗) 이 어느 봄날 아침
뜰악을 거닐다가 우연히 버드나무에서 지저귀는 꾀꼬리소리를
듣고 감흥을 받아 무용화한 것으로 순종 숙황후(純宗
肅皇后)의 보령(寶齡) 40을 경축하기 위하여 추어진 것을
축약하여 무대에 올린다.

● 소리굿

음악/김영동의 '매굿' 中에서

부름의 소리,
그것은 우리 한 민족의 특유한 心性,
그것은 마치 달팽이 껍데기같은 마음의 집을 짓고
그속에 웅크리고 있는 듯한 심성,
울고 깨어남과 떠나감을 알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공허한 들판에서 끓어오르는 자폐의 서러움을 토해낸다.

● 山韻

음악/황병기

송강 정철의 가사「星山別曲」에 표현된 山의 운치를 그린
正樂風의 曲에 맞추어 父情을 애뜻하게 그려본다.

- Intermission -

● 變身

음악편집/김옥균

끝없는 두세계, 죽음과 죽음너머 탄생되는 새로운 환희로운
생명을 표현한것으로 마치 언덕속에서 빛을 꿈꾸고,
빛의 한가운데서 어둠의 그림자를 만나는
이 대조되는 세계속에 인간의 삶은 끝없이 새로 태어나며
끊임없이 변신하며 보다 성숙된 세계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

崔恩姬는 1955년 인천生으로 이화
여대, 동대학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
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립국악원에서
민족문화, 궁중무용에 대한 체계를 쌓았
으며 또한 국학회 창립회원으로 무속에
도 관심을 갖고 있다.

창무회 회원이기도 한 그는 전통과 현
대의 접목에 창작의 축을 두고 1982
년 첫 개인발표회인 夏至祭를 갖고 그
해 대한민국 무용제에서 '넋들임' 을 안
무하여 대상을 수상했다.

그외 주요 안무작품으로는 '넋'
'지난겨울', '춤108', '허재비의꿈' 등
소품 다수가 있다.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장을 거치고 현재
부산 산업대학교 무용과에 재직중이다.

● 출연 / 이명미 (해화여중 교사), 정미숙 (고려교육대학원), 윤보경 (동아교육대학원), 이영화 (자매학원 강사), 김죽엽 (부산산업대 무용과4), 김희선 (부산산업대 무용과4)
안줄이 (부산산업대 무용과4), 윤경화 (부산산업대 무용과4), 이영림 (부산산업대 무용과4), 장래훈 (부산산업대 무용과3) 김성홍 (부산산업대 연영과2년)

● 스태프 / 안무: 최은희 ● 조명: 김장태 ● 의상: 정선, Mr. 리 ● 미술: 정진윤 ● 음향: 오인종